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음 1월 28일)

제22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 발전 돌파구

# 소외도시 벗어나 중심도시 탈바꿈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행정중심지로 조선시대 3대 도시로 불린 전주는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6대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지원이 집중 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며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편집자 주

전주시가 '특례시'를 향한 행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각오에서다.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넣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시, 군, 구 순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 ▲전주는... '소외의 도시'

전북은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2015년 기준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으로 추락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 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결산 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에 비할 수 없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특례시란?

특례시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자치체와 기초 지자체 중간 형태의 도시다.

### 전주시, 행보에 역량 집중 지정시 재정수입 증가 혜택

### ▲특례시 지정되면... 행·재정 지원 ↑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재정상 특례가 적용돼 시민의 세금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시는 늘어난 재정을 통해 도로·교통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복지 등 전반적인 시민 편의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행정적인 측면에선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아울러 특례시 지위 부여로 중앙 정부와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대규모 사업과 세계대회 등 국제사업을 유치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첨단·관광산업 육성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자체 도시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별취재반

## '대한독립만세'... 100년전 울려 퍼진 그날의 함성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가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송성환 전북도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우렁차게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 “전북 발전 · 국가 번영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자”

### 도,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전북도는 1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열어 화합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석종건 제35사단장, 강인철 경찰청장을 비롯한 전북도 주요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전주군 삼례면(현재 완주군 삼례읍) 영신학교 재학생 중 학생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고 장금암 선생의 자녀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으며, 특히

미국지사 이석규씨 등 참석해 송하진 지사 “동학혁명의 새색 만세운동 등 항일역사 이어져”

일제강점기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독립선언문과 태극기제작 등 투철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신 도내 유일의 생존애국지사 이석규씨가 9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기념식은 전북도 도립극악원의 국악 관현악 공연으로 시작,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100년 전 우리지역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기념공연과 도민과 함께하는 만세삼창, 3·1절 노래제창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아울러 식후에는 공연장 주변에서 전북도 독립운동영사를 사진으로 전시하는 전시행사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선언서 탁본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행사, 그리고 다양한 부대공연 등이 온종일 이어져 기념

식에 참여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하진 지사는 기념사에서 을수사원을 언급하면서 “봉건과 외세의 동토(凍土)를 뚫고 나온 동학혁명의 새색은, 전북 곳곳의 의병활동과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 운동처럼 자랑스러운 항일 역사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의 원천으로써 큰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국독립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 선조들처럼, 전북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농진청, 지역발전 이끌 공동 협력사업 발굴 나서

###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등 상생협력 스타디투어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전주발전을 이끌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상생협력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과 우수사업을 학습하고, 국가예산사업 발굴 등 전주 발전을 이끌 공동협력사업 발굴과 상생협력을 위한 스타디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스타디투어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스타디투어

에 이은 두 번째다. 시는 이날 농촌진흥청 스타디투어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확산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정생산 기반 기술 확대 등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농촌진흥청의 주요사업에 대해 학습했다. 또, △전주시 발전을 위한 협업사업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날 스타디투어에는 관련 출연기관장들이 함께 참여해 국가사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향후 논의된 사업의 구체화를 하는데 힘을 실기로 했다.

시는 발굴된 사업들은 양 기관 실무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 더 큰 전주, 앞서가는 지역농업'을 이뤄내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에 이어 나머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스타디투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월 4일자)

### 본사 인사

▲조용주  
임:부장  
명:익산주재지사

(3월 4일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